‘단식’ 이재명, 병원 이송 거부 … 지도부·원로들 중단 촉구

오늘로 19일차…주말 의료진 만류에 119 출동했지만 결국 철수
지도부, 출구전략·체포동의안 고심…검찰, 이번주 영장 청구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투쟁이 2주를 훌쩍 넘겼지만 당 안팎에서 ‘출구전략’를 찾지 못하는 분위기다.

당 고위 관계자는 단식 18일째인 17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미 단식에 들어갈 때부터 ‘무기한’이라고 강조했고, 단식을 풀 만한 명분들도 마련해 놓지 않았다”며 “현재로선 단식을 접을 수도, 접어서도 안 된다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전날 ‘여야 대표 회담’ 제안과 함께 단식 중단을 거듭 요청했지만, 이 역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열흘 넘게 단식을 조롱하던 여당 대표가 인제 와서 저러는 것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행사 참석차 상경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대표를 직접 만나 단식 중단을 설득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당 지도부로선 단식 출구 전략 마련은 물론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도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이 대표 단식으로 그나마 잠잠했던 계파 갈등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 표결 향방을 계기로 재점화할 수 있어서다.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되기는 했지만, 당내 무더기 이탈표가 나오면서 한동안 분란이 인 바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번 주 초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체포동의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다.

지도부 내에서는 앞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으로 보면서도 최근 당내 ‘부결 여론’이 거세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실제 친명(친이재명)계에서는 ‘본회의 표결 거부’(민형배 의원)나 ‘체포동의안 당론 부결’(서은숙 최고위원) 등의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반면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불체포특권 포기’ 진정성을 증명하려면 이 대표가 정식으로 가결 요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고 해도 적잖은 수의 반대표가 나올 경우 또다시 ‘방탄 정당’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이 대표의 공식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단식 자체를 놓고도 방탄이라는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를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사태를 더 키울 수 있다”며 “의원 전원에게 가결을 공식 요구하고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7일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한 이재명 대표를 병원으로 옮기려 했으나 이 대표가 강하게 거부해 무산됐다.

지도부는 이 대표 단식 18일째인 이날 오후 3시 15분께 국회 본청 앞으로 119구급차를 호출했다. ‘신속히 입원해야 한다’는 담당 의료진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이어 최고위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단식 농성장인 대표실에 들어가 이 대표에게 병원 입원 필요성을 알렸다. 119 구급대원이 들것을 갖고 들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단식 중단은 물론 병원 입원을 완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는 1시간 가까이 이 대표를 설득했으나 실패했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차도 결국 철수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17일 단식 중 건강이 악화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투입됐던 구급대원들이 빈 들것을 끌고 당 대표실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유인촌·신원식·김행 지명 철회를”

“보수 지지층만 염두한 인사…전면 개각 통해 국정 쇄신 나서야”

더불어민주당은 17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개각에 대한 맹비난을 이어가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개각은 국민 뜻을 외면하고 보수 지지층만을 염두에 둔 퇴행적 개각이며 ‘폭정’이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 폭정이 극에 달했다. 이번 개각은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국민과 싸우려는 태도를 버리고 유인촌·신원식·김행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금 당장 윤석열 정권은 폭정을 멈추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해임하라”며 “전면적인 개각을 통해 국정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이날 이재정 위원장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김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과 관련, “드라마틱하게 엑시트(exit)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비판을 퍼부었다.

이들은 “김 후보자의 낮은 전문성과 경솔한 태도 모두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기괴한 표현을 써가며 말장난하는 건 정부 부처 존폐를 얼마나 가벼운 사안으로 인식하는지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본인이야말로 후보자 신분에서 ‘엑시트’하라”며 “여가부 기능과 위상은 강화돼야 한다. 여성 인권과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김 후보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야권 추천 인사인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의결을 앞둔 것에 대해 “해임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몰아내려던 시도가 덜미를 잡혔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방문진을 장악하려고 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민주, 한덕수 해임안 제출 결의

더불어민주당은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즉시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5시간에 걸쳐 진행한 의원총회 도중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즉시 제출한다”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 특검(특별검사)법 관철을 위한 필요한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 수사, 야당 탄압과 정치 제거, 전 정권 죽이기에 맞서 싸우겠다”,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함께 국민 항쟁에 나설 것”,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를 추진한다” 등의 내용도 결의문에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도 결의했으며, 이를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 대표는 이날로 17일째 국회 본청의 당 대표실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홍수 피해’ 리비아에 200만달러 인도적 지원

외교부는 대규모 홍수 피해를 본 리비아에 200만달러(약 27억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과 국제적십자적신월사연맹(IFRC)을 통해 이뤄진다.

리비아에서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동북부 데르나 주변을 강타한 태풍으로 심각한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유엔에 따르면 1만3천3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실종자 1만명, 이재민 4만명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교부는 “이번 지원이 태풍, 홍수로 피해를 본 리비아 국민들의 조속한 안정과 피해 지역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총선 라운지

‘日 오염수 방류 철회·민주주의 수호’ 피켓 시위

문금주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내년 총선에서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에 출마를 준비중인 문금주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16일 무안군 남악면 김대중 광장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와 민주주의 가치 지키기’를 위한 피켓 시위를 열었다.

이날 피켓 시위에는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 청년들도 함께 했다.

문 전 부지사는 “온 국민이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걸린 중대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현 정부의 결정에 우려를 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회 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위에 참여한 청년들은 “현 상황은 단순한 정치적 이해나 정파를 넘어 국민 전체의 생존과 미래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다”면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방류 철회를 현 정부에 촉구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땅끝농협 농기계서비스센터 임대 안내

전남 해남군 송지면에 위치한 땅끝농협 농기계서비스센터를 아래와 같이 임대하고자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연락바랍니다.

임대시설 개요
· 주 소 : 전남 해남군 송지면 달마로 19(미야리 219-10)
· 면 적 : 건물(369㎡), 대지(2,584㎡)
· 임대시설물 : 목적물 내 건물 및 기계·공구·비품 일체

임대조건
· 임대기간 및 임대료 : 상호 협의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상 농기계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신용정보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농기계수리 서비스업 경영자 우대
· 제출서류 : 신분증, 자격증사본, 주민등록등(초)본
· 신청방법 : 땅끝농협 총무계로 직접 방문 신청

문의사항
· 땅끝농협 총무계로 문의
 (전남 해남군 송지면 산정1길 80, ☎ 061-533-24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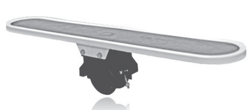
땅끝농업협동조합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 · 공공폐수 · 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컨설팅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 · 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림인더스트리㈜ 법인설립
• 2011 수출백만불탑,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모범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선정
• 2023 국세청 모범납세자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더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